



동원책꾸러기 10주년사례집



2007 - 2017

책꾸러기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PROLOGUE

CHAPTER 1

10

열 살배기 책꾸러기

책꾸러기의 여정 /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함께 읽어요, 추천도서 Best

CHAPTER 2

22

책꾸러기 친구들

만나고 싶었어요,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님 / EBS ‘방귀대장 뽕뽕이’를 연출하는 정경란 PD님
박경순 박사님의 맘힐링 / 운영위원들과 함께, 육아산책

CHAPTER 3

56

축하해요!

책꾸러기에게 쓰는 편지 / 책꾸러기란 “_____” 다

CHAPTER 4

74

내일을 향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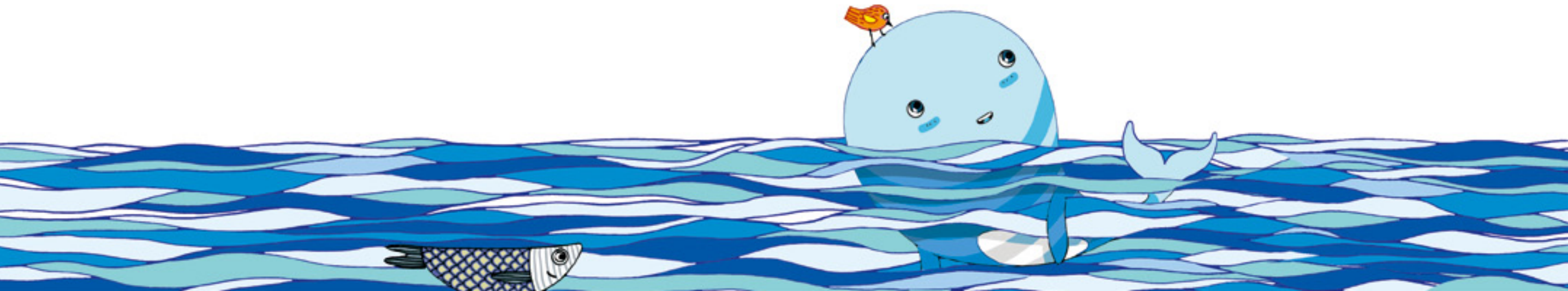
책꾸러기 10년, 이제는 ‘인성교육’이다

EPILOGUE

PROLOGUE

책꾸러기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리지만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멀리멀리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위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꿈을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던 책꾸리기는
‘책을 읽으면 되겠구나’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고,
함께 꿈을 키우며 이루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친구들에게 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살배기 책꾸러기

- 책꾸러기의 여정
-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함께 읽어요, 추천도서 Best



어느덧 책꾸러기가
열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책을
보내기 시작한 것도 벌써
십 년째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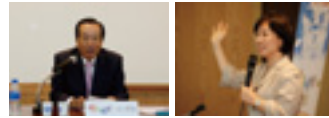
그동안 책꾸러기가
친구들에게 나눠준 책은
백만 권이 넘어요.

그 책들을 한 장 한 장
펼쳐서 연결하면
지구 두 바퀴를
돌 만큼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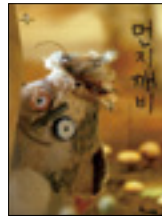
십 년 동안 나눠준 책만큼
책꾸러기의 기쁨과
보람도 크답니다.

책꾸러기의 여정

동원책꾸러기는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지나왔을까요?
때론 고래가 물을 내뿜으며
점프하듯,
때론 물 속 깊이 잠수하여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듯
많은 날들이 있었답니다.



2009.05
2주년 기념 육아강연
김재철 이사장님과 조선미
박사님께서 강의해주셨어요.



2009.10
제2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먼지깨비』의 저자인 이연실
작가님과 만났어요. 책꾸러기
친구들과 나만의 먼지깨비를
만들고, 숨씨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010.10
제4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남남』의 저자인 안도현 시인과
만났어요. 동시도 어른들의 시만큼이나
진지하게 수십번 고쳐서 쓰신대요.
꽃피는 주먹밥을 만들며 맛있게 '남남'
먹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04
제 6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그림자 놀이.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의 저자인
김인자 작가님과 만났어요. 책꾸러기들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자 연극 놀이를
했어요.



2007.05
공식 서비스 오픈
중앙일보, 위스타트와 함께 한국형 북스타트
운동을 지향하며 출발했습니다.
3,000명 신규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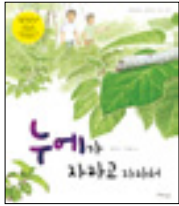
2009.09
제1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말놀이 동시집』의 저자인 최승호 시인, 이준혁
드러머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재미난 시와 심장이 두근거리는 타악기 소리로
체험하며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0.04
제3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줄줄이 뽀롱이』 권문희 작가와 함께
전래동화를 이야기하고 옛이야기 속의 호랑이가
되어 놀았어요.



2011.01
제5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입체북 만들기. 『너는 기적이야』의 저자인 최숙희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굴로 표현하여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09
제7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누에가 자라고 자라서』의 저자인 정미라 작가님과 만났어요. 정미라 작가와 그림책의 실제 주인공인 저자의 두 아들이 참여하여, 곤충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관찰일기를 작성하는 방법 등 책으로만 접할 수 없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접할 수 있었어요.



2012.12
MOM을 담은 책꾸러기 팜!
위스타트 마을의 '산타 이모'가 되어 크리스마스 카드도 쓰고 하트도 보냈어요. 하트 하나당 그림책 한 권이 되어 위스타트 마을 꾸러기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2,439명의 아이들이 '함께' 보는 책이 아닌 '내 책'을 선물 받았어요.



2013.12
Merry Donors Mas
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47명에게 보내는 그림책을 산타이모들과 루돌프들이 포장했어요. 산타이모는 책꾸러기 회원맘들이고, 루돌프는 동원육영재단 장학생입니다.



2014.12
Happy ChristMarble
세이브더칠드런과 위스타트 다문화센터의 어린이 1,025명에게 보내는 그림책을 우리 책꾸러기들이 직접 포장했어요.



2014.08
책꾸러기 새 단장
예쁜 새 얼굴, 새 마음으로 책꾸러기 서비스 시즌 2를 시작했어요.



2011.12
Magic Hands, Magic Tree
전국 어린이병원에 장기입원한 500명의 꾸러기들에게 그림책을 선물했습니다.



2013.08
제8회 와글와글 책꾸러기
『착한아이 사랑이』의 저자인 강밀아 작가님과 만나 걱정인형을 만들었어요. 꾸러기들도 나만의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2013.11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아이 강연
서울여대 정신분석학 교수님이자 『엄마교과서』의 저자인 박경순 박사님을 모시고, 착한 아이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에 대한 육아실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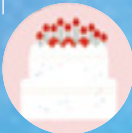


2015.01
부드러운 책 캠페인
아이가 더 자주, 더 오래, 더 쉽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아이 손, 부드러운 그림책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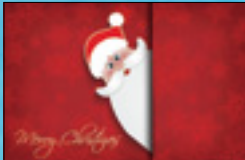


2015.10
한글나누미 1009
한글날을 맞이해서 태국의 6.25
참전용사 후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1,009권의 그림책을 보내드렸어요.

2015.12
그림책 100만 권 돌파
그간 보내드린 그림책이 100만 권을
돌파했어요. 책 한 권의 두께가 1cm면
1,000km, 63빌딩 4개를 쌓고, 한 권
길이가 20cm면 서울에서 부산을 자동차로
25,106번을 왕복하는 거리랍니다.



2016.05
10살 생일파티
어린이날 한강 난지공원에서 1,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10살 생일파티가 열렸어요.



2015.12
Secret Santa
비밀스런 산타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책꾸러기들, 산타할아버지 말씀
잘 지키고 있었지요?



2015.05
EBS '한글이 아호'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엄마표 한글 프로그램인 '한글이 아호'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동원 육영재단의 시작

IQEQCQ의 고른 발달을 통해 미래
인재의 기반을 닦아갑니다!

동원육영재단은 1979년 7월 2일
(문교부 설립허가)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김재철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던 장학금을 좀 더 체계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원육영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원육영재단은
미래 인재 배출을 위해 우수한
젊은 영재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신학 활동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발걸음

중·고생 장학사업 1979~ - 장학금 지원 사업	서번트리더십 장학금 (대학생) - 학교재단을 통한 서번트리더 육성 - 장학생 여름캠프	동원책꾸러기 '엄마와 책읽기' 캠페인 2007~ - 매월 1만 2,000 가정 그림책 무료지원
YTF (Young Talent Fellowship) '영재 지원사업' 2012~		

완료된 발걸음

동원컵 초등축구대회	명사 초청 특강 - 이여령, 이원복, 김미화 등 사회적인 명사가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의 진행 - 도서 발간	동원글짓기대회 - 바다, 가족, 지구를 주제로 글짓기 대회 개최
동원글로벌익스플로러 '대학생 꿈지원 프로젝트'		
교육 발전 분야 - 서울대 동원생활관 건립 - 고려대 글로벌리더십 센터 건립 - 부경대 동원장보교관 건립	학교 재단 설립 - 부경대, 전남대, 한국외대, 조선대, 남도학숙 (기금출연)	연구비 지원사업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고려대, 연세대, 국립수산연구원 등

이렇게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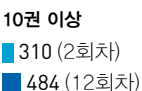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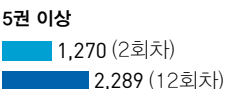
책꾸러기에서는 매달 신규 ‘좋은책맘’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한 달에 한 권씩, 일 년동안 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책꾸러기에서는 그 중 두 번째와 열두 번째 즉 마지막에 책을 신청하기 전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과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과연 신청 초반부와 후반부의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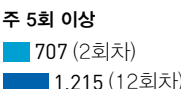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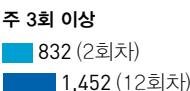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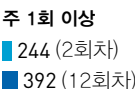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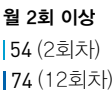
설문조사 기간: 2016.1.1 ~ 2016.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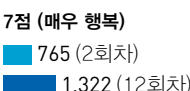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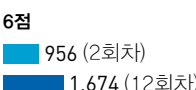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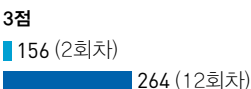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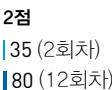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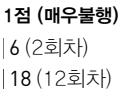
1
하루 대략
몇 권 정도의 그림책을
읽어 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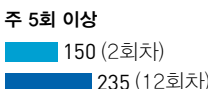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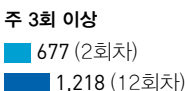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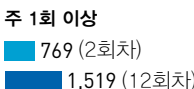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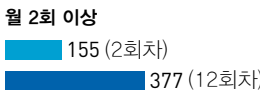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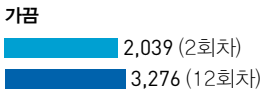
2
귀댁의 부모님께서
최근 3개월간 아이에게 얼마나
그림책을 읽어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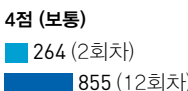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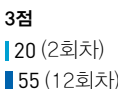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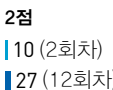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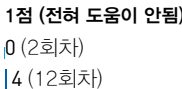
3
최근 본인은 엄마로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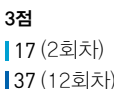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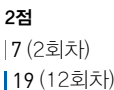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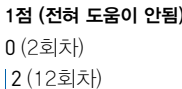
4
그림책을 읽어주신 후
관련된 내용의 ‘책놀이’는 얼마
나 자주 해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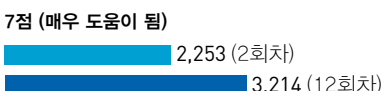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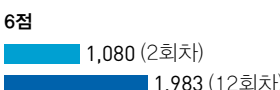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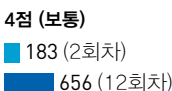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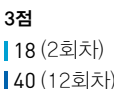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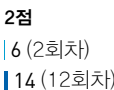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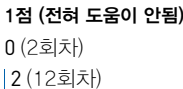
5
‘책놀이’가 아이의 지능지수
(IQ, Intelligence Quotient)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6
‘책놀이’가 아이의 감성지수
(EQ, Emotional Quotient)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7
‘책놀이’가 아이의 창의지수
(CQ, Creative Quotient)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읽어요, 추천도서 Best

육아서 10선

- 1 엄마 교과서 | 비룡소
- 2 부모와 아이 마음 간격 1mm | 파인애플
- 3 부모와 아이사이 | 양철북
- 4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 에담프렌드
- 5 엄마 학교 | 큰술
- 6 하루 3시간 엄마 냄새 | 김영사
- 7 엄마 무릎 학교 | 위고
- 8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 에담프렌드
- 9 스마트 러브 | 나무와숲
- 10 조선미 박사의 자녀교육특강 | 한울림

베스트 좋은책맘을 뽑아요

책꾸러기가 추천했던 도서 중 아이와 함께 했던 책놀이, 읽고 나누었던 대화, 엄마가 느꼈던 점 등을 홈페이지 '책놀이' 게시판 (<http://www.iquecq.com/playbook/bestgoodbookmom/list>)에 올려주세요.

'베스트좋은책맘'으로 선정이 되면, 멋진 책장과 함께 그림책100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명의 '베스트좋은책맘'이 선정되었어요. 책놀이 활동기는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따라 해 보세요.

추천도서 100선



- 1 구름빵 | 한솔수북
작은 구름을 반죽하여 빵을 굽는 엄마. 그리고 구름처럼 두둥실 떠오른 아이들.



- 2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 사계절
땅 위로 올라왔다가 동세레를 받은 두더지 이야기. 제목부터 신선한 책.



- 3 콧구멍을 후비면 | 애플비
흥미로운 주제,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줍니다.

- 4 아기곰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 주니어랜덤

- 5 까만 토끼 | 주니어랜덤

- 6 위에서 아래에서 | 마루벌

- 7 바다 100층짜리 집 | 북뱅크

- 8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 비룡소

- 9 터널 | 논장

- 10 우리 엄마 | 웅진주니어

- 11 연이네 설맞이 | 책읽는곰

- 12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페이퍼백) | 사계절

- 13 내 입 속에 충치 가족이 살아요! | 살림어린이

- 14 아기곰에게 새 친구가 생겼어요! | 주니어랜덤

- 15 콧구멍을 후비면 (페이퍼백) | 애플비

- 16 내 사과, 누가 먹었지? | 노란돼지

- 17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 북뱅크

- 18 두드려 보아요 | 사계절

- 19 도토리 마을의 빵집 | 웅진주니어

- 20 입이 똥고에게 | 비룡소

- 21 내 토끼 어딴어? | 살림어린이

- 22 벌 할아버지 | 세웅

- 23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 국민서관

- 24 바바빠빠 | 시공주니어

- 25 똥쟁이가 달라졌어요! | 애플비

- 26 아빠, 코 잘래요! | 키다리

- 27 이슬이의 첫 심부름 | 한림

- 28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 | 아이맘

- 29 우리몸 털털털 | 웅진주니어

- 30 아빠랑 함께 피자놀이를 | 보림

- 31 과일들이 사는 나라 | 시공주니어

- 32 설빔 : 여자아이 고운 옷 | 사계절

책꾸러기가 선정했던 도서 중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도서 100권을 소개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33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 보물창고

- 34 또또와 사과나무 : 관찰력을 길러주는 | 세상모든책

- 35 미용실에 간 사자 | 키즈엠

- 36 배고픈 애벌레 | 더큰

- 37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 재미마주

- 38 똥쟁이가 달라졌어요! (페이퍼백) | 애플비

- 39 산타 할아버지만 보세요! | 삼성당

- 40 내가 어른이 되면 말이야 | 해솔

- 41 코끼리 | 현복스

- 42 함께 세어 보아요 | 마루벌

- 43 선인장 호텔 | 마루벌

- 44 노란 우산 | 보림

- 45 티치 | 시공주니어

- 46 책 먹는 여우 | 주니어김영사

- 47 관찰아, 넌 할 수 있어! | 세상모든책

- 48 고 녀석 맛있겠다 | 달리

- 49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솔이는 엄마 마음도 몰라 | 상상스쿨

- 50 고릴라 코딱지 | 노란돼지

- 51 숨쉬는 향아리 | 보림

- 52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 한림

- 53 집 나가자 꿀꿀꿀 | 웅진주니어

- 54 산타 할아버지, 11개월 동안 뭐하세요? | 미래아이

- 55 애완 공룡 티라노 | 푸른날개

- 56 100층짜리 집 | 북뱅크

- 57 세계와 만나는 그림책 | 사계절

- 58 관찰아 | 웅진주니어

- 59 엄마를 나누기는 싫어요! | 책속물고기

- 60 옛날 옛날에 파리 한 마리를 골격 삼킨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 베를북

- 61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 한림

- 62 뒤죽박죽 카멜레온 (페이퍼백) | 더큰

- 63 우리는 친구 | 웅진주니어

- 64 블록 친구 | 키다리

- 65 엄마가 화났다 | 책읽는곰

- 66 배고픈 애벌레 (페이퍼백) | 더큰

- 67 유치원에 가면 (페이퍼백) | 애플비

- 68 우리 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 | 아이세움

- 69 도서관 생쥐 | 푸른날개

- 70 네가 태어난 날엔 곰도 춤을 추었지 | 내인생의책

- 71 창문으로 넘어온 선물 | 비룡소

- 72 물방울의 모험 | 담푸스

- 73 눈사람 아저씨와 눈강아지 | 마루벌

- 74 설빔 : 남자아이 멋진 옷 | 사계절

- 75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 재미마주

- 76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 | 책읽는곰

- 77 엄마가 되어 줄게 | 해솔

- 78 효재의 보자기 놀이 | 마루벌

- 79 마술 연필을 가진 꼬마곰 | 현복스

- 80 눈 오는 날 | 비룡소

- 81 사과가 쿵! | 보림

- 82 응가하자, 공공 | 보림

- 83 Why? 왜 그래요? | 애플비

- 84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단다 | 마루벌

- 85 달님은 밤에 무얼 할까요? | 베를북

- 86 달님 안녕 | 한림

- 87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 베를북

- 88 미술관에 간 율리 | 웅진주니어

- 89 뽀뽀 쪽! | 베를북

- 90 지하 100층짜리 집 | 북뱅크

- 91 개구쟁이 아치 2 : 잠이 안 와 | 비룡소

- 92 곰 사냥을 떠나자 | 시공주니어

- 93 으름 헤엄이 | 마루벌

- 94 난 싫다고 말해요 | 북뱅크

- 95 아기곰이 잠잘 때 | 주니어랜덤

- 96 올리비아 마술놀이 | 효리원

- 97 신기한 수영장 | 아이맘

- 98 먼지깨비 | 킨더랜드

- 99 노란 풍선의 세계 여행 | 마루벌

- 100 까궁 만만세 : 우리 아가 손놀이 그림책 | 장수하늘소

CHAPTER 02

책꾸러기 친구들

- 만나고 싶었어요.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님
- EBS '방귀대장 뽕뽕이'를 연출하는 정경란 PD님
- 박경순 박사님의 맘힐링
- 운영위원들과 함께, 육아산책



책꾸러기가 십 년 동안
친구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쑥쑥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책꾸러기 곁에는 응원하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항상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나눠주고,
더 좋은 방법을
의논해준 사람들,
책 읽는 것이
날로 좋아진다면 책꾸러기를
기다리는 친구들... .

책꾸러기는 이런 친구들이
한없이 고맙고,
한편으론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롭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님



어린이에게 책을 보내는 마음

하얀 종이처럼 깨끗한 어린이의 마음에

첫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학교 교육보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에서도 유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알게 하고

꿈을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하는 것도

값진 교육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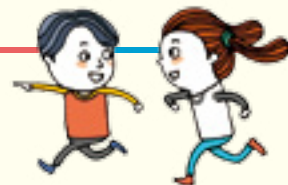
엄마와 아이의 사랑스런 대화 속에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2009년 여름, 동원육영재단 김재철



안녕하세요, 김재철 이사장님!
저는 7살 때 책꾸러기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17살 고등학생
이 된 박금지라고 합니다.
제가 '동원육영재단'을
운영하시는 이사장님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벌써 동원육영재단의 책꾸러기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책꾸러기 10주년에 대해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책꾸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책꾸러기 어린이가 자라서 인터뷰를 요청해오니 시간이 이만큼 흘렀음에
감회가 새롭군요. 박금지양 뿐 아니라 동원책꾸러기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모두 박금지 양처럼 똑똑하고 의젓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저는 젊어서부터 사업상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 사람은 개개인으로는 우수한데 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한때는
나라까지 빼앗겼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
국민은 무척 똑똑하나 서로 화합하지를 못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런 틈새
를 이용한 외국세력에 의해 나라가 휘청거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화합하지 못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지식은 밀
어넣었으나 인성을 가르치지 못했고, 더욱이 다른 사람과 잘 협조하는 공
동체 생활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지식을 올바로 쓸 줄 모른다는 것
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성은 학교에서보다
도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더 효과가 있고,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가
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학 전 어린이들
에게 부모님이 다양한 책을 읽어주며 오손도손 대화하는 교육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린이 책꾸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보니
주변에 꿈이나 뚜렷한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당장 편하고 즐기려는 욕망이 같이 있지요. 개선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서 후일에 보람을 느끼지만, 당장 즐기기에 열중한 사람은 훗날 아무런 보람없이 허무함만 느낄 뿐이지요. 또 분명한 목표 없이 하는 노력은 골문 없이 부지런히 공만 차는 축구선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축구선수가 골문을 향해 공을 차듯, 분명한 목표를 정해 노력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동원그룹을
이끌어 오시면서
힘들었던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원을 창립한지 금년으로 48년째, 동원육영재단을 설립한지 38년째입니다. 동원은 위기와 함께 컸습니다. 70년대 1,2차 석유파동, IMF 등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면승부를 함으로써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뒷일은 신(神)의 섭리에 맡긴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신뢰관계를 쌓아두면 그것이 신용이 되어 어려울 때 크게 받쳐주는 하늘의 도움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와 같은 고등학생이 읽고
감명을 받았으면 하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옛날에는 위인전이나 고전을 읽으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엔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 되었기에 한두 권의 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듯 여러 방면의 책을 두루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동서양의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 살아가는데 유익하단 말을 하고 싶군요. 오늘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다독을 통해 책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많답니다. 동원책꾸러기 사업도 사실 독서에서 얻은 지혜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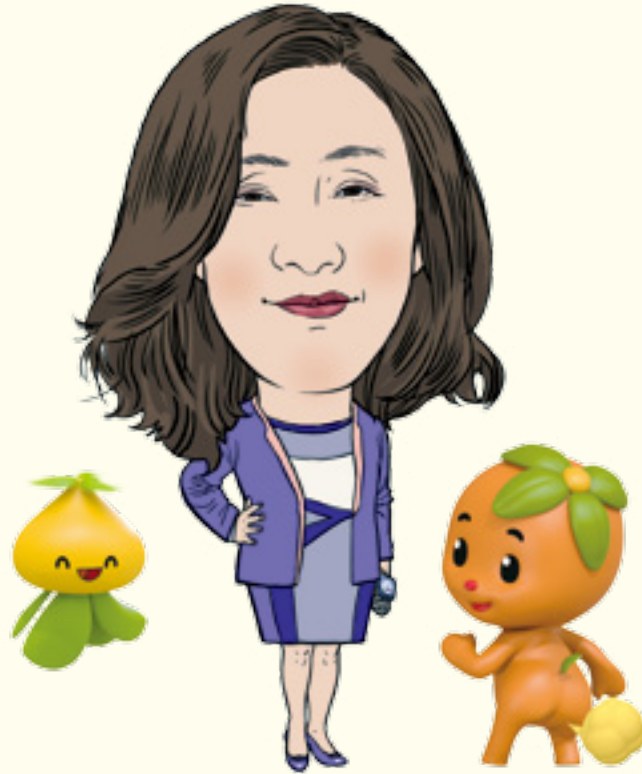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시면
다른 부분에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재 육성이나
어린이 독서 활동 향상을 위해
투자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섯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해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매슬로우도 말년엔 인간욕구 5단계 위에 6단계가 있고, 그 6단계는 바로 공동체에 대한 봉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윤 창출을 한 후, 우리 회사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보다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를 위해 교육의 장을 좀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아이가 나중에 좋은 어른이 되어 좀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을 보고 싶은 욕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책, <김재철 평전>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어머님께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기억과 함께
현재 책꾸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어머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포함한 11남매를 키우며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은 책임감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배움은 없으셨지만 저의 바다사업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맑은 정화수를 길어다 놓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들께 당부 드린다면,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을 주시되, 잘잘못을 구별하여 절도 있는 사랑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가족들과 독후활동을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많이 쌓았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꿈도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꿈을 이룬 멋진 모습으로 꼭 찾아 뵙고 싶네요! 책꾸러기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방귀대장 뽕뽕이’를 연출하는 정경란 PD님

시시각각 변하는 영유아들의 기호를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무려 17년 동안이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 장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EBS ‘방귀대장 뽕뽕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정경란 PD님도 책꾸러기 부모님들과 다르지 않은,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책꾸러기 사업 10주년을 맞아 과연 ‘뽕뽕이의 대모’ 정경란 PD님의 교육 철학과 육아 비법은 무엇이고 샘솟는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정경란 PD님께서 세 자녀의 엄마시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시하거나 신경써서 교육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본질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나 신용을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격변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는 저의 ‘지향’일 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는 자신있게 대답하진 못하겠어요.

육아, 교육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만큼 책을 활용한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을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요?

인류의 문명은 문자와 책을 통해 후대에 전수되었습니다. 지식 습득과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비롯한 활자 매체가 최고입니다. 영상은 감정에 호소하는 매체이기에 책을 대체할 수는 없죠. 문자는 추상적이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독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는 책을 놀이로 즐기게 하세요. 글자를 읽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육아, 교육할 때 보이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년 전 이 질문을 받았다면 교육에 열성적이라는 점은 장점이고 때때로 자녀와 본인의 인생을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몰두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듀 푸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니깐요. 요즘은 육아와 교육도 ‘양극화’가 있어 일반화해서 장단점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인지적인 교육에만 집중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EBS 방귀대장 뽕뽕이는
17년 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랑받고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모방하고 연습합니다. ‘놀이는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방귀대장 뽕뽕이의 캐치프레이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양육자와 ‘함께 즐기는 놀이’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기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동시에 부모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또 주요 시청자층인 3세 전후의 아이들이 향문기에 걸쳐져 있는 시기라 똥, 방귀 등에 집착하고 재미있어하는 점에 착안하여 ‘방귀’를 특징으로 한 ‘뽕뽕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유아교육학의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제작하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밖에 없었으며 장수프로그램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뽕뽕이를
선보이셨는데 3D캐릭터에서
뽕뽕이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싶으셨나요?
아이들이 방귀대장
뽕뽕이를 통해 취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탈인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D 애니메이션으로 뽕뽕이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요즘 영유아들이 선호하는 비주얼로 디자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뽕뽕이 캐릭터는 모션 캡처 방식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게 됩니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이러한 변화는 모두 ‘방귀대장 뽕뽕이’ 프로그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니 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즐기는 놀이 경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에 대한 원동력이나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그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비법은 따로 없고 평소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일하는 데 반영이 됩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알게 된 것이나 관심을 가진 것이 일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일이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지침이 된 책이 있나요?
어느 시절에 읽으셨고, 어떤
책이었는지 소개해주세요.**

딱 한 권을 고르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당시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고 시사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동원육영재단 책꾸러기
사업 10주년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요.**

의미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10년을 한결같이 열성을 다해왔기 때문에 더 치하하고 싶습니다. 10년이면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는 ‘일만 시간’을 채우셨을 텐데,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책꾸러기 사업’이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교육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박경순 박사님의 맘힐링

책꾸러기에서는 홈페이지에 육아 고민 상담 게시판인
‘맘힐링’을 운영하고 있어요. 맘힐링 게시판을 통해 그간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에 대해
궁금하거나 힘든 사례를 공유해주시고, 전문가인 박경순 박사님께
소중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히 읽어볼까요?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교수
- 「엄마교과서」 저자
- 「엄마교과서」는 동원책꾸러기와 출판사 비용소가 공동 기획하여 2012년 6월 28일에 발간하였습니다.

Q1

미운 네 살과
예쁜 두 살,
어떡하죠?

네 살(35개월)과 두 살(20개월), 두 딸을 둔 엄마예요. 첫째 아이가 말도 빠르고 영리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똑똑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런 게 육아서에서 본 ‘퇴행’인가 싶은데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기처럼 굴면, 엄마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까요?

세 살이 되고 싶고, 다섯 살은 되기 싫다는 우리 첫째. 누구보다 똑똑하게 굴다가도 어쩔 땐 모질이 같이 굴기도 하는 우리 예쁜이 첫째. 요즘 들어 부

쩍 엄마에게 달라붙어 뭐든지 엄마랑만 하려고 하고, 동생을 좀 안아줄라 치면 멀리서 놀다가도 쏜살같이 달려와 동생을 밀어내고 엄마 품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동생도 어린이집에 가야한다

요즘 들어 부쩍 엄마에게 달라붙어 뭐든지 엄마랑만 하려고 하고, 동생을 좀 안아줄라 치면 멀리서 놀다가도 쏜살같이 달려와 동생을 밀어내고 엄마 품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며 사고집을 부리고, 엄마랑 어린이집에 같이 들어가겠다며 아침마다 울고불고, 자기만 어린이집에 있고 동생이랑 엄마가 집에 가서 속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주어도, 일부러 마음을 써서 더 크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첫째에게 주어도 꼭 동생 것과 바꾸려고 하는 우리 첫째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또 야속하기도 합니다.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요.

둘째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과 눈길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첫째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A1

나도 아가야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똑같이 주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정이란 개수로 나누어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그저 파이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애정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파이 조각의 사이즈가 다른 가정보다 조금 클 뿐,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파이 나누기에서는 묘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조각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조각이라고 판단했어도, 찹는 순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이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지요. 아이의 입장에서 형제란 나 혼자 다 먹고 싶은 파이를 빼앗아가는 '라이벌'이자 '적'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부모의 시선을 빼앗아간 적입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일찍이 형제간의 라이벌 의식을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라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좌절이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라고 했습니다. 사실 형제간의 다툼은 누구나 겪어야 할 운명이며 성장 과정입니다. 동생을 시샘하는 언니는 이유 없이 왕좌에서 밀려난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할 관심과 사랑을 동생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큰 아이 입장에서 '우애'란 부모가 '강요'하는 덕목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배우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큰아이의 행동이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가 오히려 동생을 위하고, 돌본다면 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한 '눈치'나 '몸부림'일 것입니다.

만 3세가 지나면 대뇌피질에 신경회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급속히 늘고, 인지기능이 더 발달하면서 미숙하기는 하지만 조작적 사고기능이 시작됩니다. 이를 피아제는 '전 조작기(pre-operational stage)'라고 했습니다. 인지적으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찾아가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의 독자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글 첫머리에 '아이가 영리하고 말도 빨라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Miller라는 심리학자가 '영재아(gifted child)의 비극'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민한 아이들이 갖게 되는 불행감을 잘 서술해놓았습니다. 요점은

언어나 인지적으로 똑똑하다 보면 부모나 어른들이 다 큰 아이로 여기게 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의 절뚝발이가 된다는 것이지요. '정서나 감정'의 발달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속도로 발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아이의 '퇴행'은 건강하고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으로 배웠어요'라는 말을 씁니다. 연애도 책으로 배우고, 요리도 책으로 배우고. 하지만 그

것을 내 것으로 채득하기까지는 '시행착오'라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으로 열심히 배워도 양육은 항상 어렵고 변수가 많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고 부모 또한 무수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답은 항상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하는 행동이나 마음'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상충된다면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으로 열심히 배워도 양육은 항상 어렵고 변수가 많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고 부모 또한 무수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답은 항상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하는 행동이나 마음'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와 상충된다면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31개월 된 남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고 대신에 저는 아이를 보러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 갑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가오면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가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실내 놀이터를 가면, "이건 00꺼야! 오지 마! 오면, 00가 다치잖아!"하며 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어 냅니다. 그럴 때면, "지금은 00가 놀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안 갖고 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라고 말하면, 더 큰소리로 "00이가 다친단 말이야! 그러지 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되려 소리칩니다.

Q2

“오지 마,
이건 내 꺼야!”
자꾸 억지를
부려요.

그러한 행동을 집에서 조금 고쳐 보려고, 가지고 있는 인형으로 “00아, 포비도 이거 갖고 놀고 싶어. 포비도 한번 갖고 놀게 해 줄래?”라고 인형놀이로 풀면, 00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도 척척 잘 줍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도 갖고 놀아”라고 하며 공유도 잘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노는 시점에 돌입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맘에 들지 않으면 드러눕거나, 던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기에 엉덩이를 때렸더니 울면서 일부러 토를 하였습니다. 토함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가 등의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끔 주말에 아이와 함께 실내 놀이터를 가면, “이건 00꺼야! 오지 마! 오면, 00가 다치잖아!”하며 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어 냅니다. 그럴 때면, “지금은 00가 놀고 있으니깐 다른 친구들이 안 갖고 가,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라고 말하면, 더 큰소리로 “00이가 다친단 말이야! 그러지 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되려 소리칩니다.

A2

주말 엄마

‘워킹맘’, 참 고단한 일입니다. 더욱이 서울과 부산을 사이에 두고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것이 어지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고단할 것 같은 엄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싶습니다.

언어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놀이’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독자분 자녀의 경우,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로부터 침범을 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누구와 같이 놀거나 양보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몇 밤을 자고 난 후에 엄마가 오고, 자고 나면 엄마가 사라지는 그 상황을 아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은 엄마와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독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육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엄마가 아닌, 매일 같이 있는 아빠가 담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무 아이

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고, 주말이면 가족들 속에서 피곤함을 좀 녹이시는 편이 어떨까 싶네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엄마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입니다. 고단함을 마다하고 먼 길 달려 왔는데 아이가 오히려 엄마를 데면데면 대하면 것처럼 속상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절대 엄마를 잊지 않으니까요. 발달적으로 불안도 많고, 공격성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너무 행동의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않고, 그 행동 속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 교과서 p.41, ‘버릇잡기 어디까지 해야하냐’, p.86, ‘공격적인 아이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어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놀이’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합니다. 독자분 자녀의 경우,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로부터 침범을 당할까 두렵고, 그래서 누구와 같이 놀거나 양보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례함이나 공격성을 다루는 것이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에서부터, 동생을 괴롭히거나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때리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울며 생떼를 부리는 행동, 자기 마음에 안 차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는 행동

등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고 남보기 민망한 행동들로 부모를 당혹케 한다. …(중략)… 아직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무례함이나 공격성을 다룰 때 부모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꾸지람을 들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낀다. 둘째, 아이는 부모가 화내는 감정과 체벌하는 행동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것만 주의한다면 어떻게 훈육을 하든 관계없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물론 예외 없이 단호해야 할 때도 있다.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 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접 피해가 가는 경우이다) – ‘버릇잡기, 어디까지 해야 하나?’ 발췌

입을 떼면서 배운 몇 가지 말을 적재적소에 써먹는다. ‘싫어’, ‘아냐’, ‘내거야’, ‘엄마 미워’… 알맞도록 제 필요한 말만 골라서 배우는 것 같다. 부모 입장에서 말 안 듣는 아이, 순한 아이가 아닐 수 있지만, 모두 정상 발달이다. 이 시기에 보이는 공격성은 자기주장(assertiveness)으로 가는 이정표의 시작이며 여기서부터 회로애락의 감정이 구체화된다. – ‘공격적인 아이들’ 발췌

Q3

또래랑
이야기를
안 해요

어제 생일로 48개월이 된 우리 아들은 외동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예민해서 잠 자기도 힘들고 자주 깨고 축각도

예민하고 낮가림도 심하답니다.

올 1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나 저와 함께 갔다가 점심 후에 하

원하고 했습니다. 2월부터는 그럭저럭 제가 어린이집 견학 수업에 한 달에 한

놀이터에서 만나도 웃기만 할 뿐, 등원해서도 친구들과 놀지 않는 듯해요. 다들 모여 놀고 있을 때에도 혼자만 선생님 뒤를 따라다니고…

A3

엄마가 더
좋아

번 정도 참여하며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가 또래와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도 웃기만 할 뿐, 등원해서도 친구들과 놀지 않는 듯해요. 다들 모여 놀고 있을 때에도 혼자만 선생님 뒤를 따라다니고… 어린이집 짝꿍의 집에 두세번 놀러가도 말 한 마디 안하네요. 집에서는 하루종일 재잘거리는데. 말이 빠르고 사투리를 사용해서 친구들이 못 알아 듣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엔 유치원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30명이나 되는 친구가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게 나을까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내년도 5, 6세 통합반을 할 계획인데 그냥 동생들과 지내면서 또래 관계를 더 배웠다가 7세에 유치원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친구보다는 엄마가 더 편안하고 집에서 혼자 노는 게 편한 것처럼 말해요. 하원 후 놀이터로 놀러가면 옆에 붙어 있거나 엄마랑 놀려고만 해요. 어떤 결정이 나은 결정일까요?

일반적으로, 4, 5세가 되면 또래집단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대체로 또래들과 어울리기 어려워

하는 경우, 인지기능이나 언어발달을

점검하기도 하는데, 엄마와 의사소통하

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

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친구들

을 관찰하는 능력도 있고 사회적 상황

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도 별 문제

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또래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어울리는데 무언가 힘든 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또래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경우, 인지기능이나 언어발달을 점검하기도 하는데, 엄마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친구들을 관찰하는 능력도 있고 사회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감각이 예민하고 낮가림도 심했다고 했는데, 선천적으로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의 조그만 변화에도 잘 놀라고, 그것 때문에 불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무리하게 번잡한 사회 생활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한 유치원 생활에 적응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이 스스로 안전감을 느끼는 환경만큼 천천히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도 지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이 빠르고 사투리를 사용해서 친구들이 못 알아 듣는 걸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빠르다'는 것이 말의 속도가 빠른 건지, 언어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유창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무언가 뒤처지는 것도, 너무 빠른 것도 또래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든 언어발달이든 또래보다 뒤처지면 아이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를 챙겨줄 수 있는 인지적인 여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언어가 유창하고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 또래의 수준을 넘어서도 역시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좋은 것을 이상화할만한 시기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 산다면 굳이 사투리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말투가 동네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인가 싶습니다. 그 '사투리'의 출처가 궁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무언가 뒤처지는 것도, 너무 빠른 것도 또래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투리의 억양 등이 또래가 사용하는 언어와 많이 다르다면 소통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님의 자녀가 예민한 아이라면 스스로 다름을 느끼고 수줍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 온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양육자의 언어(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투리의 억양 등이 또래가 사용하는 언어와 많이 다르다면 소통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님의 자녀가 예민한 아이라면 스스로 다름을 느끼고 수줍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양육자로서 엄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활발한 성격이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주로 아이와 집에 계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엄마 역시 아이처럼 예민한 성격인지, 매사에

꼼꼼하고, 불안을 잘 느끼는 편은 아니신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생활 태도나 성격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내색하거나 표출하지 않아도 아이는 엄마의 많은 부분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동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더욱 그렇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오랫동안 밀착되어 있으면, 아이가 그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사교적이지 않다면, 먼저 엄마가 사회생활 반경을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매사에 꼼꼼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혹시 내재된 불안에 의한 행동은 아닌지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역시 아이처럼 예민한 성격인지, 매사에 꼼꼼하고, 불안을 잘 느끼는 편은 아니신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생활 태도나 성격이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들과 함께, 육아산책

책꾸러기 사업 10주년을 기념하여, 운영위원 일곱 분과기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책꾸러기 활동을 통해 위촉된 운영위원분들이에요.

정성껏, 솔직히 답변 해주신 덕분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내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되거나 알쏭달쏭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운영위원 일곱 분을 소개해요

까비

(자녀 - 남아 만13세, 여아 만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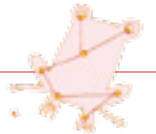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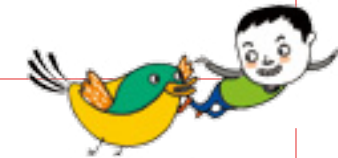
사랑하는 아이를 믿는 만큼의 자유를 주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게 하고
싶어요.



하늘사랑

(자녀 - 여아 만14세, 남아 만12세)

아이들과 함께 책사랑에 빠져 오늘도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원맘

(자녀 - 외동 여아 만14세)

느리게 배워가는 아이를 키우며, 누군가를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앞쌈

(자녀 - 쌍둥이 남아 만12세, 여아 만11세)

현호, 현빈, 예서 삼남매의 엄마. 지금도 삼남매와
계속 성장 중이고, 언제나 날기를 소망했던 암탉
앞쌈을 달고 싶습니다.



콩나물

(자녀 - 남아 만16세, 남아 만15세)

책꾸러기에서 책과 만난 후 아이들과 책 읽으며
자랐습니다. 열 살이 된 책꾸러기와 동갑내기인
'콩나물 독서회'로 아이들과 책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자녀 - 여아 만14세, 남아 만11세)

대학 부속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은서와 은준이의 친구같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주머니

(자녀 - 여아 만15세, 남아 만14세)

딸이 7살, 아들이 6살이었을 때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각각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책꾸러기 활동을 한 것이 지금도 아이들 책을 읽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1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때 했던 다짐과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까비 처음에는 건강하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욕심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글을 알게 하니 한자도 시켜보고 영어도 듣게 해보는 등 그냥 책을 읽으면서 놀고 잘 커주는 것만 바라던 처음의 마음이 변해 점점 사회의 요구나 기준에 맞춰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원맘 늦은 결혼 후 준비도 없이 생긴 아이였어요. 모든 게 처음이었던 당시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며 키웠는데 만 15년이 흐른 지금 딸 아이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 갱년기에 접어든 40대 후반인 엄마는 자꾸 노파심에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기왕이면 우리 아이가 이것도 잘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자꾸 들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바르게 커주는 것만도 어디냐 하며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모든 게 느렸던 아이였기에 느림의 미학으로

키웠었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질 못하니 아이는 자라는데 부모는 늙어간단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더라구요.

일씩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먹이고, 입히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과 교감하고자 노력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때때로 소통의 변화에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된답니다.

미라클 건강하게만 잘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태교일기를 100일 동안 쓰면서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렸어요. 어느덧 15년이 지난 지금은 '이왕이면 ~도 잘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콩나물 올해 민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민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겼을 때 했던 다짐이 무엇이었는데 한참 생각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걸 보니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마음을 먹진 않았나 봅니다. 여느 부모님들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가장 우선으로 바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변함없을 바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보다 부모가 앞서지 말자는 다짐은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다짐한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자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관여하지 않는다.'가 '관여해야 한다.'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이보다 앞서서 이끌어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뒤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어렵지만 필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다짐입니다.

하늘사랑 그저 내 아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기뻐요. 그런데 막상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항상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느끼는

행복이 힘들음 이겨내게 해주지요. **생각주머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저에게 선물처럼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육아서도 읽고 선배맘들에게 조언도 들으면서 준비를 잘 했었다더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은 어느 새 아이들이 고1, 중3이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고 있어요.



2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초보 책꾸러기 맘들과 공유해 주세요.

까비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등학교에 가면 중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이들 돌을 키워보니 그 말이 참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지해주는 과정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 괜스레 조금한 마음으로 책을 읽히면서 한글을 시키고 수를 시키고 언어를 시키는, 놀아주는 엄마가 아닌 학습시키는 선생님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오래 기억하고, 간직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학습이 아닌 놀이로 책읽기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해요. 바쁜 일상에서도 아이와 함께 5분의 여유로 책읽기를 한다면, 그 후 아이와 나의 달라진 모습을 분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원맘 외동으로 혼자 크는 아이라 행여 어디 가서 버릇없고 저만 알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아이에게 항상 말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네가 먼저 양보해라 등 염려의 말들을 칭찬보다 앞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긍정적이고 밝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어차피 엄마, 아빠에게 말해봤자 자기 편을 안 들어줄거 같다고, 하고 싶은 말도 가슴 속에 묻고 그게 쌓이면 엄마 아빠가 아닌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그래도 안 풀리면 몰래 울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속상해 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아이의 행동을 어른의 잣대로만 보고 행여 남의 눈에 우리 아이가 나쁘게 보일까봐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우리 아이의 마음은 못 챙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윙썩 지금도 계속 시행착오 중이라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말을 하고 싶어요. 각자가 느끼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육아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 또한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격려해 주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지금 내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독하게 말 안 듣고 힘에 버거울 때면 가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과 동영상을 꺼내 보곤 한답니다. 지나간 그 자리에 너무도 어여쁜 아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요. 내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그 시절의 아이들 모습을 보노라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조금 용서(?)가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워도 훗날엔 또 지금 이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답니다.

미라클 직장맘이라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어서 저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게 시행착오였더라구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에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한 게 '책꾸러기'였어요. 양적인 육아보다 질적인 육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콩나물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요. 클수록 갈등과 선택의 상황은 끝이 없고 다양해집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아이들이 큰 갈등과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앞세워 아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내 입장에서 동일시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거나 이것이 아이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일방적이기 쉬웠습니다. 지나치게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아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 영역의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는 아이가 청소년인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숙제입니다.

하늘 사랑 큰 아이 때는 멋모르고 키우다 보니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울거나 말을 안 들을 때는 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책꾸러기 덕분인데요, 아이들과 그림책을 보고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항상 엄마가 먼저 말을 하고 아이들은 따라야 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는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니 아이가 울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랬구나~’ 하고 아이의 마음을 봐주니까 아이도 엄마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각주머니 시행착오는 현재진행형인 듯 합니다. 워낙 요즘 엄마들은 아무지게 아이들을 잘 키우시니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도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금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리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육아법이 있나요?

까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훈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방목을 해서는 안 되고, 훈육을 한다고 해서 과하면 아동폭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 아이가 귀한 만큼 다른 아이들 또한 귀하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가 아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은 아이가 커가면서 평생 해야 하고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인성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이를 믿는 만큼의 자유를 주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게 하는 육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원맘 아이가 또래보다 습득력이 조금 느리다는 걸 알게 된 뒤 무조건 여러 번 무한반복하며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외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가 무얼 하면 행복하고 즐거울까를 생각하며 외동아이기에

친구들을 사귀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공연도 보며 나름 자유롭게 키웠고 뭐든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만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질 못하고 저도 어느 부모처럼 공부 좀 해라, 체벌 책 좀 가까이 해라, 읽지는 않더라도 보기만이라도 하라고 말하는 잔소리쟁이 엄마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윙씩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 부부 나름의 원칙은 있습니다. 성적의 결과 자체로 상벌을 주기보다는 시험 기간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거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때 물질적인 보상이나 체벌을 대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기 무섭고 두렵더라도 용기 있게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 그에 대해 체벌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몇 가지 경우를 정하고 이에 해당될 때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면했더라도 그에 응당한 책임은 반드시 지도록 합니다.

미라클 엄격한 방목! 울타리가 분명히 있지만, 울타리 안에서 많은 간섭없이 지켜보는 편이에요.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자극들을 즐기길 바라요. 울타리는 크고 넓어야 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특히 공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양쪽 조부모님)은 '너무 자유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 대신,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에는 단호하게 훈육하는 편입니다. 아주

위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주의를 주어 교육합니다.

콩나물 다른 부모들과 차별화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염두에 두었던 점은 오래 아이들과의 어울림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 세대와 살아가기보다 또래들과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늘사람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더욱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캠핑을 가고, 토요일에는 함께 자는

날을 만들고,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갈등도 쉽게 해결이 되지요.

생각주머니 특별히 내세울만한 육아법은 없지만, '하지 마!', '만지지마!', '이거 안돼! 저거 안돼!'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식당에도 잘 가지 않았고, 남의 집 방문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집 방문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갈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요.



4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비 좋은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 엄마의 말을 잘 듣는다고 평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 부모처럼, 중학생이라면 중학생 부모처럼 차차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오래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고 함께 웃어준다면 또래만큼 소통하기는 쉽지 않아도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테니 그만큼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맘 저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많이 곤란하네요.

원썩 고민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큼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간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래서 부단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더 나아지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라클 '기다리기', '재촉하지 않기', '환호하기'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를 할 때는 빨리 걸으라고 재촉을 하지 않던 엄마들도 점점 아이가 크면서 재촉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조용히 기다렸을 때, 본인이 성취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엄마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해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재촉하지 않고, 함께 환호해 주는 게 좋은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콩나물 육아 전문가, 이웃, 책, 마스크 등에서 좋은 부모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안내합니다. 저도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두 제 밖에서 찾았던 셈입니다. 그런 방법들도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우선은 아이와 나의 관계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나 시행착오는 아이를 잘 살피고 대화하면 단번에 쉽게는 아니더라도 풀리게 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나와 분리시킬 수 없는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좋은 부모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사랑 저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 봤는데요, 책 안에서는 약간의 팁만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완전히 내 것이 되지는 않더군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좋은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하는 부모가 되려고 해요. 육아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것보다 항상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육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라고 봐요. 내 삶을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면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생각주머니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니 좋은 모습으로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정의롭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5

지나고 보니,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다’ 하는 것
있으신가요?



까비 책꾸러기를 하면서 했던 책놀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책놀이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무엇인가 했었던 경험은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남들은 방학 때 힘들게 숙제를 했다면 아들은 6년 내내 책놀이를 한 모든 작품들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중2가 되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책을 꺼내 읽곤 하기 때문에 아들과 책읽기, 책놀이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원맘 성질 급한 제가 뭐든지 느리게 배워가는 아이를 키우며, 누군가를 참고 기다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는 것을 꼽고 싶어요.

앞씨 책꾸러기 활동하던 시절, 아이들이 유아기 때 그림책을 많이 접하게 해준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지금도 자부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께 셋 다 '책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라는 칭찬을 꼭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이면 책을 펼쳐서 보고, 쉬는 주말에 아이들이 조용해서 들여다 보면 각자 편안한 모습으로 책을 보고 있는 풍경은 저를 참 흐뭇하게 한답니다.

미래를 아이를 낳은 것, 책꾸러기를 만난 것, 그리고 책꾸러기에서 해놓은 책놀이를 나만의 기록인 책으로 남겨놓은 것이예요.

콩나물 저는 책꾸러기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과도 책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앞에서 많은 유혹과 좌절이 있었지만 지금도 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책과 벗하는 좋은 사귀 콩나물 독서회', 우리 독서회의 이름입니다. 책과 벗 삼은 것이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잘 한 일이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사랑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책놀이를 한 것이지요. 그냥 책읽기만 했다면 더 많이 읽어주고 보여주기 위해 노력만 했을거예요. 엄마의 욕심만 앞섰겠지요. 그랬다면 아이와 눈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하며 함께 웃고, 또 그렇게 웃는 모습을 바라봐주지 못했을 겁니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걸 보면 '참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놀이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추억들이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지 않나 싶어요.

생각주머니 당연히 아이들과 책 많이 읽고 책을 통해 많이 놀았고 도서관과 서점에 많이 갔었고, 책놀이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닌 점인 것 같습니다.



6

책꾸러기가
좋은 이유?
추천한다면?

까비 널리널리 홍보해야 해요. 이만큼 좋은 계기가 어디 있을까요? 책도 받고 다른 mam들과 그 책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때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mam들은 꼭 여기를 거쳐 가셨으면 합니다.

시원맘 어릴 적 읽었던 책들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모든 상상력이 집약된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는지 아이와 함께 크면서 알게 되었기에 주변에 추천을 절로 하게 됩니다.

잎싹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는데 어떤 책을 보여주면 좋을지 잘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라클 이미 주변에 추천을 하고 있어요.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추천합니다. 책꾸러기에서 내가 경험한 걸 그들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지요.

콩나물 혼자서 빨리, 멀리보다는 함께 천천히 오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늘사랑 스마트폰 대신 아이들과 함께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자극에 빠져들수록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잃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잠깐 편하자는 마음에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 기기를

줘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이해력과 사고력과 같은 생각의 깊이가 파괴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끈은 바로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들어 있고, 책꾸러기에 오면 책과 만나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주머니 지금도 신규 직원들이 와서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동원책꾸러기'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가까이하게 할 수 있고, 엄마와 아이가 재미나게 놀 수 있으며, 가족끼리의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고, 책꾸러기 안에서 또래 엄마들과 많은 것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운영위원분들인 만큼 세밀한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책꾸러기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축하해요

- 책꾸러기에게 쓰는 편지
- 책꾸러기란 “_____” 다

친구들도 그 동안
책꾸러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봅니다.
책꾸러기의 만 열 살을
축하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 가득 보내왔어요.

책꾸러기는 친구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큰 관심과 사랑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습니다.

책꾸러기는 세상 곳곳에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들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니
저절로 힘이 솟습니다.



책꾸러기에게 쓰는 편지

만 10살이 된 책꾸러기에게 많은 회원님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열 분을 골라서 페이지에 소개해요.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지식과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독서의 장점이지요.
회원님들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칭 동원책꾸러기 홍보대사



토깽이새댁

작년에 둘째가 태어나고 워킹맘으로 생활하다 두 아이 옆에 든든한 지원군인 엄마로서 살아가려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하다 책을 같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 책은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 읽으면 되지만, 아이들 책은 계속 새로운

책을 접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은 동원책꾸러기에 신청하게 되었지요. 몇 번 도전했는데 안 되다가, 세 번 끝에 좋은책맘이 되었답니다. 처음 받은 책이 '엄마고과서'였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 달부터 매달 1일마다 아이 책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지요. 그리고 택배 오기를 기다렸어요. 택배가 오면 맨 먼저 첫째 아이가 '이거 나울이 선물이야?'라고 묻는답니다. 아이와 함께 선물같은 책을 펼쳐서 읽으면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책이 우리 가족의 삶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도 느껴졌어요. 동원책꾸러기에서 선정된 책들이 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책들이지요. 거기다 얼마 전 2017년을 맞이하여 감사미소이벤트에 정말 감사한 것을 기록하자는 의미로 신청했는데 10명 중에 제가 당첨되는 기적같은 행운도 찾아왔답니다. 거기서 받은 100층짜리 집 시리즈는 저희 딸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책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동원책꾸러기가 10주년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지금 저는 자칭 동원책꾸러기 홍보대사라 불립니다. ㅎㅎ 많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동원책꾸러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엄마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어느 가정에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는 동원책꾸러기



곰말

동원책꾸러기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요. 아이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책을 좋아하긴 하는지 의심이 들던 때에 좋은책맘이 되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라 엄마인 제 기준으로 선택한 그림책이라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아이가 무척이나 좋아하며 먼저 가지고 와 읽어달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도 동원 책꾸러기로부터 받은 책들이 톡톡히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선택했던 '수박 수영장' 책을 어찌나 좋아

입원 기간 동안에도 동원 책꾸러기로부터 받은 책들이 톡톡히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하는지. 지금은 '감기걸린 물고기'에 푹 빠진 아이랍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는 동원책꾸러기의 1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첫째 딸



황금빛그녀

동원책꾸러기 10주년 축하드려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첫째딸이 있어

요. 잘 때 항상 책을 다섯 권씩 읽어주는데 가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제가 몸이 너무 힘들 때 '오늘은 그냥 자자'고 말하면 울음을 터트릴 정도로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책장에 있는 책은 이미 다 읽은지 오래됐네요. 책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연령에 맞게 고루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희집 책은 너무도 부족했어요.

딸에게 좋은 안내자이자 친구,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딸에게 동원 책꾸러기에 대해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 이제 책 많아지는 거냐고, 책이 자기가 고르겠다고 좋아하네요. 딸에게 좋은 안내자이자 친구이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동원책꾸러기를 알게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동원책꾸러기는

고마움 그 자체



도서관맘

〈인연〉첫째 아이가 조금씩 자라 여유가 생기면서 일명 ‘책 육아’를 시작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육아방식이더라고요. 처음엔 지인에게 받은 책 전집을 통해서 그림책의 세상을 알게 되었고 중고서적으로 책 몇 짚을 구입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한동안 육아카페에도 ‘홀릭’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세상이 옆집 아줌마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곳에서 글을 읽다 매달 무료로 책을 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바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동원책꾸러기와 인연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부모들이

신청하기에 6전 7기는

도전해야 당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든 꾸준히 하면 언젠가

는 책꾸러기맘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매달 초에 아이와 함께 읽을 책을 고

르고 한 달 동안 도서관에 가서 책꾸

러기 선정도서에서 나와 있는 책들을

빌려봤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한 번 더 보고 그다지 관심 없어 하는

책도 하루에 세 권 정도는 꾸준히 읽

어줬어요.

보통 아이가 말을 못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단지 한글로 표현을 못할 뿐, 우리 첫

째를 보니 네 살쯤 말을 하는데 과연

저 아이가 저런 단어를 어디서 배워

서 할까 싶을 정도로 어린이집 선생

님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림책에 나와 있는 어휘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리면 그림만

보여주고 조금 더 자라면 글을 하나

아이 눈높이에서 말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에
그림책 만한 것이 없어요.

더 읽어주고 하는 식으로 보여줬더

니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고마움〉동원책꾸러기에서 매달

신청할 수 있는 선정도서 목록을 보

면서 단행본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전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양각색

의 그림책을 접하면서 행복한 고민

에 빠지곤 했어요. 한 권만 골라야 하

는데 뭐로 신청해야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아이가 어떤 책을 더

좋아할까 등등의 고민을 하면서 말

이죠.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사서

보여줘도 되는데 책을 고르는 순간

만큼은 생각이 멈추는 마법의 시간

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책꾸

러기맘이라면 한 번씩 경험해 보셨

을 거예요.

그리고 책이 차고 넘치는 요즘 어떤

책이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지, 양질

의 그림책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책

꾸러기의 선정도서 목록을 보면 그

런 고민이 한 방에 해결되지요. 이래서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초보엄마들에게 동원책꾸러기는 그림책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닌가 싶어요.

〈변화하는 아이들〉우리 첫째가 올해 일곱 살인데 얼마나 사교적이고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요. 제가 아이에게 항상 차분해지라고 말을 했더니 이 녀석이 되려 그러더라고요. 차분한 게 뭐냐고…… 그래서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땐 내 수준에서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 눈높이에서 말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기에 그림책 만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책을 보여준다고 활발한 아이가 갑자기 얌전해진 다거나, 산만한 아이가 집중을 잘하진 않더라고요.

첫째가 그림책을 잘 보고 한글을 따

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작년 겨울쯤 간단한 문장을 읽더니 요사이엔 긴 문장도 거뜬히 읽더라고요. 이걸 저는 ‘때’라고 보는데 요즘 엄마들은 네 살부터 아이 한글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이가 그림책에서 그림 대신 한글을 먼저 읽어버리면 아이의 무한한 상상력은 포기해야 한대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궁금해 할 때 알려줘야지 싶었는데 일곱 살이 되니 그림책 글자를 줄줄 읽는 기적을 맛봤어요. 책만 꾸준히 보여주면 한글공부도 스스로 깨우친다는 놀라운 사실!

4살 터울의 21개월 남매 동이도 형, 오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들도 앞 다퉈 읽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첫째가 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3분 정도의 시간이 제가 지켜본 가장 흐뭇한 순간이에요

첫째가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수업

을 듣는데 그때 작은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놀아요. 아직은 책을 가만히 앉아 보기보다는 책을 만지고 꺼내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만 네 살이 되면 책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않고 아이를 독립적이고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동원책꾸러기만 매일 들락날락거려도 된답니다.

이곳에서 소개해주는 그림책을 보고, 아이가 한글을 익히려 할 땐 ‘한글이 야호’를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엄마들과의 수다로 세상과 소통하다보면 어느 순간 아이의 그림책 보는 수준도 높아질 거예요.

항상 느끼지만 동원책꾸러기는 고마움 그 자체예요. 감사합니다.

동화책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동심에 빠져들게 해요



숲속사진관

작년 겨울, 둘째의 친구 엄마로부터 알게 된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 그림부터 밝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집 가까이 도서관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림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동원책꾸러기를 통해 매달 예쁜 그림책도 읽어보고, 아이도 저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가 셋

이어서 매달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동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성숙시켜주는 의미깊은 동원책꾸러기네요. 감사해요. 또한 10주년 축하합니다. 더욱더 많은 엄마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책은 전집으로

사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동원책꾸러기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었지요. 2순위, 3순위 책들은 따로 사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추천도서보다

hyneh326

안녕하세요, 동원책꾸러기에서 1년간 책을 받아봤던 예진이네입니다. 아이 책을 살때 단권으로 사기보다는 전집으로 사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동원책꾸러기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매달 좋은 책들을 선정해 주셔서 고르는 것도 꽤나 시간이 걸렸

꾸러기에 있는 선정도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에게 시기에 맞는 책을 고르고 읽혀주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책을 읽어줘야 하는데,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엄마도 책이 온 날만큼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게

인터넷에 떠도는 추천도서보다
꾸러기에 있는 선정도서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에게 시기에 맞는 책을
고르고 읽혀 주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됐고, 책에 관심 없던 아이도 본인이 관심있어 하는 책들이 오니 눈이 반짝이는 걸 보게 되었지요. 좋아하는 책만 보다가 어느 날은 다른 책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구요. 주변 아이 엄마들에게도 자연스레 추천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가 책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몇 번이고 읽어 달라고 해요



해동

함께 품앗이를 하던 하은이 엄마의 소개로 알게 된 동원책꾸러기,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저는 말이 많지 않은 엄마예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웬말이 많아서 주위에서 “애는 말 잘 하겠다. 말 빠르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말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주변의 선 엄마가 말을 많이 해줘야 아이의 언어 발달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지만 워낙 웬말을 많이 하던 아이라, 내가 말을 많이 해 주지 않아서 아이의 언어 자극이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

고... 동원책꾸러기에서 한 달에 한번 책이 오는데, 아이가 그 책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이 오면 몇 번이고 읽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야하는 시간인데도 책 더 읽어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책은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빠 최고!”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를 듣고 입이 귀에 걸렸죠. 평소에 엄마만 찾고 아빠에겐 잘 안 가니 아빠가 많이 서운해 했었거든요. ‘누구 발일까?’라는 책은 처음에 왔을 땐 그다지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신발장을 열어서 다양한 신발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고 나니 이 책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밤에도 이 책을 읽다가 잠들었네요. 이 책에서 세계의 다양한 신발이 나오는데 일본의 ‘게다’를 보면서 계속 신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게다 신으러 일본 여행가야겠어요. ㅎㅎ ‘집으로 가는 길’도 엄청 좋아해서 몇 번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서정적이고 은유적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말도 엄청 느는 걸 보면서 내가 말은 많지 않지만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에 관한 책을 읽으며 아빠와 친밀감도 높아졌어요. 처음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책이라도 책놀이를 함께 하면 아이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도 알았구요. 항상 책 읽기 전에 책 표지에 붙어 있는 ‘동원책꾸러기가 ~에게 줍니다.’라는 스티커를 읽어줘요. 그러면서 ‘동원책꾸러기가 서연이에게 책 선물해줬네. 참 고마운 일이야, 그치?’라고 하면 아이가 뿌듯해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선물해 주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소망해봐요. 그렇게 온기가 돌고 돌아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만들어 준 동원책꾸러기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요.

책꾸러기 아빠입니다



gmp98

책꾸러기 아빠입니다. 아이가 돌이지

만 한 아이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어 한동안 뜸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10주년을 맞았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꾸러기를 통한 책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참여를 통해 아이들에게 동원의 이미지와 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책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책꾸러기가 10년이 아닌 20년, 30년, 100

년 지속, 유지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비용적인 부담이 클 수 있겠지만 한 가정당 한 아이가 아닌 모든 아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요. 항상 지금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책의 소중함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홍보 대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변함없는 책꾸러기가 되었으면 해요.

부모가 읽어주는 좋은

동화책들을 통해 사랑을 듬뿍

느끼며 건강하고 바르게 커나가길



카모밀라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 사는 15개월 현오엄마,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우연히 동원책꾸러기를 알

게 되어 매달 좋은책맘에 응모해왔는데 이번 달부터 선정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더욱이 올해가 동원책꾸러기 10주년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부모가 읽어주는 좋은 동화책들을 통해 사랑을 듬뿍 느끼며 건강하고 바르게 커나가길 바라는 동원책꾸러기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제 첫 번째 '엄마교과서'를 수령하면서 오늘 책꾸러기 홈페이지에 둘러 다시 선정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요. 선정되었을 때나 책 신청기간인 매달 1일 또는 책 신청 마감일인 매달 20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있으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생기면 참여하는 재미도 있고 홈페이지 접속률도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노고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달 좋은책맘을 신청할 때 따라쓰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아이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겠습니다.

책을 받은 아이가

산타선물이 도착했다며

즐거워해요



로엔

딸아이를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어, 마음 속에 하루종일 지켜봐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는 아이와 책읽기를 해야겠다고 홀로 다짐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아이가 집중을 잘 하지 못하니 목도 아프고 힘들어 조금 읽다가 끝내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몇개월을 거르지않고 아이와의 시간을 보

내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책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구요.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책꾸러기를 알게 되었고, 책꾸러기에

서 좋은책맘들의 글을 보며 아이와 함께 하는 책읽기 시간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매달 한 번 만큼은 딸아이의 시선에서 책을 고르려 노력하게 되고, 그 책을 받은 아이가 산타선물이 도착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희 딸아이처럼 기뻐할지 눈에 보인답니다. 책꾸러기와 함께한 지 벌써 9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딸아이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몇 권씩 꺼내와서는 “엄마, 우리 동화책 읽어요”라고 말

어느 순간부터 책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거려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몇 권씩 꺼내와서는 자동으로 제 다리 위에 앉는답니다.

하며 자동으로 제 다리 위에 앉는답니다. 게다가 몇 개월 전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읽기도 하고,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을 빌려와 읽기도 진행 중이랍니다. 엄마가 하나만큼 변하니, 신기하게도 아이는 둘만큼 변하네요. 꼭 그래왔지만, 책꾸러기를 더 널리 알리려구요. 책꾸러기를 만나면 모든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테니까요. 동원책꾸러기 1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영원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책꾸러기란 “_____”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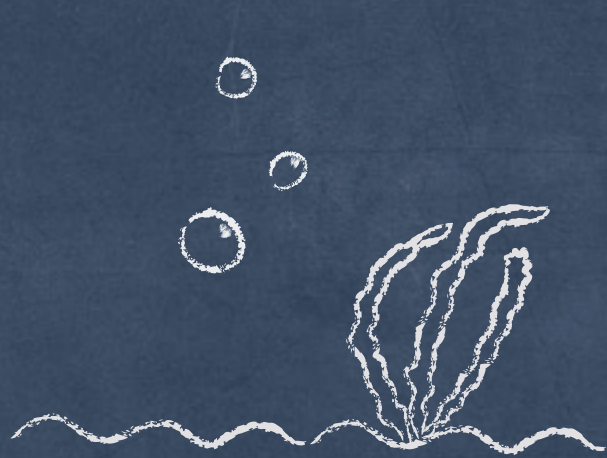
책꾸러기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책꾸러기 10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성장하는 책꾸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로 책꾸러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주셨는지 확인해볼까요?

책꾸러기는 “택배아저씨”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책이 오면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했어요. 한참 말 배울 때라 ‘때때 짹 (택배 책)’ 하면 얼마나 웃기던지, 택배기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다른기사님도 한동안은 ‘때때 짹’으로 불렸답니다. 그때 그 택배기사님은 잘 지내시겠죠?
준우희망맘

책꾸러기는 “묵묵히 빛을 내는 북두칠성”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 안내자, 책꾸러기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길이 옳다고 알려주는 것으로도 북두칠성의 소임은 다한 것일진대, 실제 기회를 제공해주고도 생색내지 않는 그 묵묵함에 더 감동합니다^^
단발머리줄마



책꾸러기는 “소금”이다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인 소금! 책꾸러기는 소금처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책꾸러기 10년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10년도 멋지게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단이엄마

책꾸러기는 “세상과의 대화”이다

아직 엄마만 알고 있는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세상에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통해 그 접근방식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또맘88

책꾸러기는 “엄마 무릎”이다

엄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으면 엄마 심장소리도 듣고 숨소리도 느끼고 가끔 엄마의 어색한 연기에도 놀라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책꾸러기는 엄마와 아이의 인성이 자라나는 엄마 무릎입니다.
은뚝뚝

책꾸러기는 “도토리”이다

그림책 속 글과 그림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육아에 지친 엄마의 마음을 ‘(토)닥이고’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 아이에게는 책이 주는 기쁨을, 엄마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선물해줍니다.
기특이엄마

책꾸러기는 “배냇저고리” 이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인 배냇저고리는 엄마의 사랑이지요... 책꾸러기는 아이가 도란도란 엄마와 함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워가는 공간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입고 이만큼 자란 것처럼 엄마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책꾸러기는 배냇저고리입니다.
sputnik7



책꾸러기는 “MSG 미첨가 영양식” 이다

좋은 영양사(동원책꾸러기)를 만나
MSG 미첨가 영양식(좋은 책 선정
추천)을 받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룡

책꾸러기는 “추억의 과자 종합선물세트” 이다

어릴 적 과자종합선물세트를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번 시도 끝에 당첨되어 받아든 책꾸러기,
달마다 어떤 걸 볼까 고르고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받아서
풀어보고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까지 느끼니
행복합니다.

삼일이맘

책꾸러기는 “가족”이다

책꾸러기는 아이에게 엄마의 말이 되어 주고, 아빠의 웃음이 되어 주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되어 주며, 잠자기 전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도 되어
줍니다. 책꾸러기를 통해 아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랍니다.

jhmint

책꾸러기는 “쉼터”이다

책꾸러기를 통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잠깐의 휴식시간이 생기고 아이에게는 생각의 날개를
퍼는 쉼터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sehana



책꾸러기는 “징검다리”이다

다리를 건너 안내하듯이 어떤 책을 골라야할지 모를 때 좋은 책을 추천받고
책놀이하면서 즐겁게 건너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읽다보면 풍족해지는
징검다리가 아닐까요?

실실희



책꾸러기는 “적금”이다

더 밝고 바른 미래사회를 위해 동원과 엄마가 매달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에요.
매달 차곡차곡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의 시간도 추억도 쌓을 수
있으니깐요.

뽀로롱치키치키



책꾸러기는 “열 달을 품어 만난 내 아기”이다

열 달 동안 정성을 다해 품었다가
그 눈부신 만남을 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설레는 마음으로 책만남을
기다려봅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성장을 보살펴온 것처럼 소중한 내
아이도 보살펴주시길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김서맘

책꾸러기는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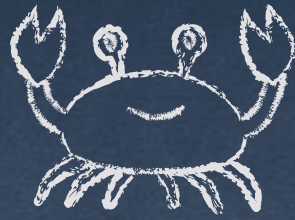
설레며 기다리는 봄 같은
책꾸러기네요.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만드는
능력자예요. 아이 책인데 어른도
궁금증이 들어 아이보다 먼저
받아들고 읽어보게 만드네요.
곰딸

책꾸러기는 “키재기”이다

점점 아이의 생각주머니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키재기. 책꾸러기와
함께 하면서 아이의 생각도 마음도
쑥쑥 자랐습니다.
사랑그리고행복

책꾸러기는 “타임머신”이다

한 달에 한 번 동원책꾸러기 책을 받아 아이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린 아이가 되어 책 속에 푹 빠지곤
합니다. 내 어린시절 타임머신을 태워주는 동원책꾸러기.
도서관맘



책꾸러기는 “우리 아이 친한 친구”이다

책 꽃이에 독박육아를 하면서 마음도 몸도 지쳐있을 때쯤 알게 된 책꾸러기!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물받으면서 아이와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애착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친한 친구라고 말하고 싶네요!
소녀감성

책꾸러기는 “씨앗”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년이면 12개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속에
쑥쑥 심어줍니다. 그 씨앗 덕분에
우리 아이 마음의 씨앗은 점점 더
자라서 아주 큰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과아기

책꾸러기는 “책통령”이다

뽀로로가 아이들의 우상인 뽀통령이듯 아이와 엄마들에게
늘 새로운 지혜와 슬기를 선물해주는 유익한 선물이에요.
매달 열심히 좋은책맘이 되기 위해서 응모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유익한 책 선물에 늘 감사드립니다.
young20125

책꾸러기는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다

무료 나눔기로 인해 행복이 더해지고
그 행복이 또다른 누군가에게
더해서 곱절이 되니 마음이 더 없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동원책꾸러기
정말 사랑합니다.
지환

책꾸러기는 “피터팬”이다

영원히 늙지않는 피터팬처럼, 10년동안 한결같이 책
속의 세상을 통해 또다른 네버랜드를 꿈꾸도록 해주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행복과 감사함을 알게 되니 그 자체로 네버랜드가
아닐까 싶네요.
plusryu



책꾸러기는 “병원”이다

아이의 아픈 마음, 고마운 마음, 슬픈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고 고쳐주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도 다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병원! 책꾸러기에만 다녀오면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이 싹 낫는 거 같아요.
사랑스런짱

책꾸러기는 “키다리 아저씨”다

부모의 일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많은 경험을 못해 본 아이들도
책으로나마 산에는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나라 아이들은
뭘 하며 노는지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멋지고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같아요.
사랑스럽수아

책꾸러기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이다

책꽃이에 누워있던 책에 아들 녀석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책들은 살아납니다. 엄마의 입을 통해 책의 활자는 춤을 추고 그림은 아들 녀석의 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별헤는아침

책꾸러기는 “손톱”이다

보이지 않지만 남모르게 조금씩 자라는 손톱처럼 아이의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책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더불어 책꾸러기 아빠가 더욱 늘어나길 희망해봅니다.
gmp98

책꾸러기는 “자원봉사자”다

책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대가 없이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는 책꾸러기 자원봉사자님, 그 보답에 힘입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언찬솔맘

책꾸러기는 “잘 익은 사과”다

사과를 먹기 위해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요. 딸 수 있는 방법, 맛있게 먹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책꾸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에 도전을 해서 받은 책선물 몇 권 읽다 지쳐서 아이한테 읽으라고 하지말고 즐겁게 읽어주고 다양하게 독후활동을 합니다.
빛고을삼형제엄마

책꾸러기는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랑의 메신저”다.

책꾸러기는 양질의 책을 통해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을 복돋워주고,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게 도와주는 메신저라고 생각해요. 책꾸러기를 통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요.
mippy0403

책꾸러기는 “꿈나라”이다

책은 아이들이 꿈을 가꾸며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매개체인데, 책꾸러기는 그런 꿈을 꾸는 책에 날개를 달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기 때문입니다.
스텔라코코

책꾸러기는 “여행”이다

책을 받아보는 기쁨도 즐겁지만, 어떤 책을 고를지 찾아가는 과정도 즐거웠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책으로 이어지는 것도, 함께 읽는 시간도 모두 즐거웠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 여행 과정, 여행 후 여운까지 모두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행같아요.
merryJ

책꾸러기는 “아이의 미래”다

책꾸러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책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책읽기 덕분에 우리 아이의 미래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서의 힘'을 길러준 동원책꾸러기 감사합니다.
관우천하

책꾸러기는 “동행”이다

함께 커가고, 함께 책을 읽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헤이벤자민

CHAPTER 04

내일을 향한 꿈

• 책꾸러기 10년, 이제는 '인성교육'이다



열 살배기 책꾸러기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워봅니다.

도전하고 이루어가며
세상에서 꼭 필요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식을 쌓고 세상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책꾸러기는
오늘도 힘차게 숨을
내뿜습니다.

책꾸러기 10년, 이제는 ‘인성교육’이다

2007년 어린이날을 맞아 시작한 책꾸러기 캠페인이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우리들의 목표는 소박했습니다.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IQEQCQ가 조화롭게 발달을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른 인성을 길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기대보다 ‘책꾸러기’의 책읽기 캠페인 효과는 컸습니다.

부모님도 책꾸러기 책을 받아들고 아이와 몸을 맞대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고스란히 느껴졌던 아이의 체온, 심장 박동 소리,

품 안에서 재잘거리며 행복해하는 순간의 감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무릎에 ‘툭’ 앉아,

‘책 읽어주기’는 자신을 위한 ‘특권’인양 행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귀여움도 분명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좋은 습관이나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아이 스스로 책 속 친구들을 흉내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먼저 나누고 배려하는 기쁨을 알아가며

더불어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데도 무척 효과적이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늘 한결같은 순 없지만, 힘겨워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온·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감하며 책과의 행복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자신이 받은 혜택을 나눔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부모들, 꾸준히 책꾸러기를 이끌어준 운영위원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책꾸러기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책꾸러기 사업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인성의 시작은 가정에서 영유아기부터의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책꾸러기 책을 품에 안고 읽으며, 즐겁게 책놀이 활동을 하며,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은 내 아이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금의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좋아하는 일보다 좋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바라는 것보다 바람직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흉내를 내며

저절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지닌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좋은 일을 좋아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바로 하고 싶은 일이 되며,

바람직한 일이 곧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책꾸러기 아이들이 자신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우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른으로 자라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EPILOGUE

세상 어디서든 꿈을 펼치고 나누는
책꾸러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책꾸러기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쩌면 책꾸러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넘어
세상으로 뛰어오를지도 몰라요.



혹시 길을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훨훨 날고 있는 책꾸러기를 보게 되면
놀라지 말고 반겨주세요.

"책꾸러기가 이젠 하늘을 날고 있구나."
하며 기쁘게 손 흔들어주세요.



발행처 | 동원육영재단

발행일 | 2017년 5월

동원육영재단 홈페이지 | <http://www.dwef.or.kr>

동원책꾸러기 홈페이지 | <http://www.iqeqcq.com>

편집디자인 | (주)와우이미지

인쇄 | 일진인쇄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동원육영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